

“14시간 일해도 못맞춰”…택시 사납금 인상 기사들 분통

광주 법인택시 14% 올려 하루 22만6000원...기사 월급은 절끔 인상 시민들 서비스 질 저하 우려...광주시 “노사 협의로 결정 개입 못해”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이 법인 택시 기사의 일명 '사납금'을 2만 8000원 올려 기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에도 서비스 향상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전일운전(1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수익금 기준액)을 2만 8000원 올렸다. 기준액이 종전 19만 8000원에서 14% 인상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들은 1일 사납금으로 22만 6000원을 회사에 내야 한다.

조합 측은 최저임금, 유류비가 매년 오른 탓에 경영압박이 가중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익금 기준액은 지난 2019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다.

택시 기사들은 수입금 전액을 사측에 납부하고 사측이 고정급여와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다.

사납금 22만 6000원 중 14만 6000원은 택시회사가 가져가고 8만원은 택시 기사 월급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명칭만 변경됐을 뿐 사납금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루 수입이 기준액을 넘지 못할 경우 고정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라 사납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1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미납 금액을 택시기사가 채워넣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이

신고하거나 미납 금액을 채워넣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말이다.

실제 현장에서 운전대를 잡는 기사들은 하루 22만 6000원의 사납금을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납금 인상전 매달(한달 근무기준) 495만 원을 사납금으로 내는 것도 버거운데 인상 후에는 565만원을 매달 회사에 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5년째 광주에서 법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기준금을 채우는 기사는 전체 30%뿐이었다”면서 “기준금 이상을 채우는 기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아예 채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를 떠날 고민을 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었다.

4년차 택시기사 B씨는 “그동안 새벽같이 나와서 밤에 퇴근하면서까지 사납금을 맞춰왔는데, 요일편차 등 택시기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 인상에 당황스럽다”면서 “올해 사납금 인상 소식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납금 인상은 결국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기준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비스보다는 손님 한명이라도 더 태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최수빈(여·21)씨는 “평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택시 요금이 1000원 인상되면서 부담을 느낀다. 요금이 올랐음에도 친절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들이 승객들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도 등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아졌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지난해 7월 택시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시민들은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법인택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광주시는 손익

분기점 매출액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에 여러차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말라고 언급했지만, 이미 노사협의 끝에 정해진 금액에 대해선 광주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법인택시종사자는 2019년에는 3583명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과 모임임원이 제한되면서 택시기사들은 대기 일지리를 떠났고 지난해 8월 기준 956명 감소해 2627명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

유령직원 120명 허위 등록해 고용보조금 16억원 챙긴 일당 기소

광주지검, 모집책 등 수사 확대

검찰이 유령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욱)와 수사과(과장 박준광)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명의

대여자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특별고용 창출 장려금, 실업급여 등 총 16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소포물운영자,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 휴대전화 대리점주, 식당 운영자 등 공범들은 25개 업체에 91명 허위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과 실업급여를 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 기준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120여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매월 급여명목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이체한 후 돌려받거나(‘페이백’)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증을 조작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 가정주부,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검찰은 브로커와 공모 사입주,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공범이 추가 범 죄까지 규명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집 원아 몸에 상처...아동학대 수사

무안경찰에 학부모 고소장

무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전남 피해 아동 A군에 대해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무안군 무안읍

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가 A군의 겨드랑이를 잡고 1회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몸에 손톱 자국을 남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측은 학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담당 교사를 입건했으며 피해자 진술 등을 마치면 전남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레미콘 업체-건설업체 협상 타결

납품단가 루베당 7200원 인상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1월 7일자 광주일보 7면)한 광주·전남 레미콘 업체가 건설업체와 협상을 타결했다.

우려됐던 광주·전남 건설현장이 멈추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8일 건설업체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루베(1m)당 납품단가(24MPa 기준)를 10만 2500원으로 1군 건설사들과 협상했다. 기존 9만5300원에서 7200원 오른 것이다.

이날 레미콘 업체는 가동중지를 유보하고 건설

업체와 협상을 시작했다. 유보결정에 따라 일부 레미콘 공장은 이날부터 가동을 재개했다.

인상된 단가는 2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서로 양보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건설사와 레미콘 업체가 상생의 길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삼호중 가스 누출로 숨진 하청 노동자 18일만에 장례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아르곤 가스 누출로 사망한 하청노동자(2023년 12월 23일자 광주일보 7면)의 장례가 숨진지 18일만에 치러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현대삼호중공업·하청업체와 유족이 합의했다”면서 “아르곤 가스 용접작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께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탱크 바닥에서 숨진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소속 A(48)씨의 장례가 지난 7일 치러졌다.

합의안에는 원·하청 사업주가 사고 진상조사에 노력하고 유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조는 “작업현장에 환기 설비가 없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소측정감지기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퍼지 작업용 가스 주입구 밀 산소량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